

데이터 로밍요금 아는만큼 아낀다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해외 로밍으로 데이터요금 폭탄을 맞는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5일부터 시작되는 최장 6일의 황금연휴와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여행 전 여행객들의 데이터로밍 차단법과 알뜰 이용법 속지가 필요하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에 접수된 데이터로밍 피해건수는 모두 55건으로 피해금액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얼마 전 보름 일정으로 미국을 다녀온 홍모씨는 휴대전화 요금으로 126만 원이 나오자 트위터에 통신사를 비난하

SKT·KT 1만원대 무제한 요금제 12개국 서비스

원치 않을때 설정 해제·이통사 차단 서비스 이용

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해외에서 데이터통신을 이용할 경우 비싼 데이터 요금제를 적용받아 국내에서 이용했을 때보다 비싼 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은 1패킷 당 3.5~4.5원(국내 0.025원/1패킷)으로 4MB 노래 한 곡을 전송할 경우 약 2만9000~3만6000원 가량의 요금이 발생한다. 게다가 자동으로 정보가 갱신되는 뉴스, 이메일, SNS 등 애플리케이션

의 경우 이용자가 실행하지 않더라도 데이터통신이 발생해 예기치 못한 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

이 같은 데이터로밍 요금부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 이용시 스마트폰의 기기설정에서 데이터로밍을 해제해야 한다.

실제 안드로이드OS를 사용하는 경우는 '메인메뉴→환경설정→무선 및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데이터로밍'에서

체크를 해제해야 하고, 아이폰의 경우는 '설정→일반→네트워크→데이터로밍'에서 체크 안 함으로 표시하여 해제할 수 있다.

또한, 기기설정과 함께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료 데이터로밍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데이터 요금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동통신사업자가 할인 및 정액요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 여행한다면 정액요금제 서비스로 스마트폰 데이터통신을 알뜰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SKT는 일본의 경우 1일, 7일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를 각각 1만2000원, 3만5000원에 제공하고 있고 중국, 베트남 등 12개국도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무제한 로

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도 미국과 일본의 경우 1일 1만 원의 요금으로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출국할 때 공항에서 잠깐만 시간을 투자하면 데이

터로밍 요금폭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여름휴가 시즌에는 '이동통신사, 유관기관 등과 함께 데이터로밍 캠페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각 통신사별 주요 로밍 데이터요금제

통신사	국가	서비스명	금액	기타
SKT	일본	데이터 무제한 1일	12,000원	해외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는 지정된 해외 이통사 망을 이용하여야 함
	데이터 무제한 7일	35,000원		
KT	중국·베트남 등 12개국	데이터 무제한 1일	12,000원	유료기간:14일 제공량을 모두 소진 후 자동해지
	데이터 무제한 3일	33,000원		
	데이터 무제한 5일	48,000원		
로밍데이터 요금제 (로밍 가능 국가 모두 적용)	로밍데이터 슬림 3.5MB	10,000원		
	로밍데이터 기본팩 1MB (Wi-Fi 100MB)	5,000원		
KT	로밍데이터 슬림팩 3MB (Wi-Fi 100MB)	10,000원		
	로밍데이터 라이트팩 10MB (Wi-Fi 100MB)	30,000원		
북미(미국/캐나다), 일본 등 13개국(4개 권역)	3G와 Wi-Fi 무제한 이용 무제한 데이터로밍 요금제	10,000원/일	제휴 네트워크 자동 설정 지원 권역별 요금제임	
	미국, 일본 2개국 로밍에그(사용료 무제한)	10,000원/일		



빈 라덴 추적, 위성의 힘

美 언론 "은신처 상세 분석 침투 도와"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이란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는 파키스탄의 지상에서 이뤄졌지만 지구 상공을 누비고 있는 위성들이 아니었으면 이처럼 과감한 작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MSNBC 뉴스가 2일 보도했다.

미중앙정보국(CIA)과 미군이 아보타바드에 있는 빈 라덴의 은신처 추정 장소를 찾아내자 위성사진은 상세한 현장 지도로 변신하는데 이 과정에는 미 국립지리정보국(NGA)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도는 매우 상세해서 군 당국은 이 지렛의 모형을 만들어 예행연습까지 할 수 있었다.

미 국방부는 수많은 군사위성 자료를 이용해 다양한 파장의 이미지를 합성할 수 있지만 구글 어스와 같은 웹사이트에 지도 자료를 제공하는 지오아이나 디지털글로브 등 상업 위성의 사진들도 이용한다. 이런 일련의 위성사진들을 이용하면 2001년 빈터였던 때부터 2005년 저택이 지어질 때까지, 더 가까운 지난 1월 인근에 다른 건물들이 지어질 때까지 이곳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다.

기술작전이 결정되자 또 다른 위성들이 동원됐다. 우주 상공에 떠 있는

군사위성들은 현장 전문가들과 작전을 원격 지시하는 전문가들 사이에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과정에 동원된 핵심 위성들은 DSCS(국방위성통신시스템)-III와 밀스타 시스템이다. 밀스타는 더 근래에 개발된 위성으로 안정적인 통신을 가능케 하지만 DSCS-III만큼 많은 신호 대역폭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이 시스템은 지상 기지나 정박 중인 선박, 또는 공격용 헬리콥터에 설치된 통신 단말기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빈 라덴 검거작전에 나선 네이비실 요원들은 통상적으로 암호화된 비디오를 지구 반대편으로 보낼 수 있는 헬멧 장착 카메라를 착용한다. 이런 첨단 정찰 및 통신 장비들 덕분에 미군은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비해 기술 면에서 큰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빈 라덴 집단은 미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구식 기술을 사용해야만 했는데 이것이 바로 CIA에게 단서를 던져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100만 달러가 넘는 대저택에 전화선도, 인터넷 선도 없다는 것이 분석가들의 의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들의 의심은 정공을 찌른 것이었다. 연합뉴스



《우당탕탕 아이쿠》

애니메이션 보고 안전교육도 받고

광주정보진흥원, 내일 롯데백화점서 강연

광주시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어린이날을 맞아 5일 광주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안전교육을 배울 수 있는 '제 3회 찾아가는 문화콘텐츠 전문가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부모안전교육 전문가인 강성희 아동심리학박사가 진행한다. 강연 외에도 캐릭터와 사진을 찍게 단서를 던져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당탕탕 아이쿠' 애니메이션 상영 및 안전교육 퀴즈풀이 이벤트 등 부모와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안전교육을 선사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

이다. '우당탕탕아이쿠'는 외계에서 여행 온 어린왕자 아이쿠와 그의 수행로봇 비비카 지구 친구 레미의 도움으로 복잡한 지구생활에 적응하면서 배우는 국내최초 어린이안전교육 애니메이션으로 2010년 대한민국콘텐츠워드 애니메이션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강연 및 행사는 어린이날 오후 2시부터 백화점을 방문한 부모와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350명에게는 선물도 증정 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이통사 '데이터 망' 통큰 투자

SK·KT·LGU 1~3조원대...3G 망 등 개선

국내 이동통신 3사에 올올해는 망 투자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일제히 올해 설비투자 규모를 늘렸는데, 늘린 투자비 대부분을 데이터 망에 투입하고 있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태블릿PC 등 새로운 스마트기기가 계속 등장함에 따라 데이터 이용량이 급증하는 새로운 통신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SK텔레콤은 이날 올해 설비투자

규모를 2조원에서 차사 이래 최대규모인 2조300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늘어난 3000억원은 오로지 3세대(3G) 통신망을 개선하고 차세대 통신망인 롱텀에볼루션(LTE)을 구축하는 데 쓰인다. SK텔레콤은 특히 현재 가장 많은 가입자가 사용하는 3G 망의 용량을 늘리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KT 역시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설비투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KT 관계자는 "2.1GHz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게 되면 투자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며 "다만 2.1GHz 대역 확보여부와 투자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현 시점에서 정확한 투자비 증액 규모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KT의 올해 설비투자 잠정 규모는 작년 2조9500억원보다 2500억원 많은 3조2000억원이다. KT는 올해 3G인 WCDMA와 와이파이가, 와이브로 등 '3W'와 LTE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의 올해 설비투자 규모도 차사 이래 최대인 1조7000억원이다. LG유플러스는 3G 망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LTE 망 구축에 올올해 8500억원을 투입한다. 이 회사는 내년까지 총 1조2500억원을 LTE 전국망 구축에 사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안개로 물 만든다

美 MIT, 딱정벌레서 착안 기술 개발

등딱지에 안개를 모아 수분을 섭취하는 딱정벌레의 생태에서 힌트를 얻어 아침 안개로 물을 만드는 방법이 개발됐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보도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화학 공학 박사과정 학생인 슈리랑 차트르와 그의 동료는 아프리카 나미비아 사

막의 스테노카라 딱정벌레(일명 폭탄 먼지벌레)가 아침이면 울퉁불퉁한 등딱지에 안개를 모아 물방울을 만든 후 이를 굴러가는데서 착안한 '안개 수확'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울타리처럼 생긴 그물망 패널로 안개를 모아 연결된 용기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물을 끌

어들면서서도 흡수는 하지 않는 그물망 소재에 성과가 달랐다.

차트르는 "딱정벌레는 소량의 물만 먹으면 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면서 새로 개발된 소재는 딱정벌레의 등딱지 흡수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물이 스며들지 않는 물체는 바람이 불면 모조리 날아가기 때문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불잡아 놓는 기능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MIT에서 개발된 소재를 현지 시험 결과 1m의 그물망에서 하루 1ℓ의 물을 '수확'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집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험을 계속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순창군의의회
Sunchang-gun council

59
광주일보
1952-2011

민본자치의 중심 순창군의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순창군의의회 의사일정 안내

제176회 순창군의의회 임시회 예정 (5. 11~5. 20)

-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 군유재산 관리계획 및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